

미국서 해외 첫 ‘5·18민주화운동의 날’ 제정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최석호 의원 대표 발의...9일 본회의 통과 낙관적 해외 기념일 제정 확산 계기로...광주시·기념재단도 기념식 참석키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날' 제정이 임박했다.

오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결의문'과 매년 5월 18일을 '5·18 민주화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날'이 제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1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새벽 2시 30분(캘리포니아 현지 시간 8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청사 건너편 하이엇 리젠시 새크라멘토(Hyatt Regency Sacramento) 호텔에서 캘리포니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기념식이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의 날' 제정을 포함하는 결의안(HR120)은 지난 6월 21일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민 1세대)이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미주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200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60만 명에 집중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결의안 'HR120'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HR120'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국의 광주 시민들은 열정과 용기로 함께 목숨을 걸고 민주화의 신념을 지키고자 불의한 지도자들의 가혹한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다",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한 광주시민의 희생을 기리며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5·18 민주화운동의 증거와 기록 그리고 귀중한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민주화의 메카로 만들었고 군사독재에 억눌려 있던 한국민족에게 희망을 줬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3년 5월 18일 이후 매년 5월 18일을 캘리포니아 '민주화운동의 기념일'로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에 동참한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는 낙관적이라는 것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최 의원을 도와 결의안을 준비한 김형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결의안 제정준비위원회 대표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 당일 200여명의 인사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거행한다. 기념식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5·18기념재단LA, 재미시인협회 등이 함께한다.

광주시 관계자와 5·18기념재단 측도 기념식에 참석한다. 5·18기념일 제정을 축하하며 기념일 제정을 미국 각 주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기념일 제정으로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도시 등에도 5·18기념일 제정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념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와 최석호 의원, 김형률 대표 등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 경무관 52명 전보인사 광주청 공공안전부장 정병권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 정병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을 발령하는 등 4일자로 경무관 5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으로 임명승 인 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오게됐고 자치경찰부장은 박우현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자리를 옮겼다.

광주광산경찰서장에는 정진관 현 서장이 직무대리를 떼고 자리를 지켰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으로는 최보현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전보됐다.

박성민 광주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으로 발령났고,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험지 원본파일 관리 허술 비번도 안걸려 통째로 유출

학생들 원격해킹 시도하기도 3~7월 교무실 13~14차례 침입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이 벌어진 광주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비밀번호조차 걸리지 않은 시험지 원본 파일이 학생에게 통째로 유출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서 문답지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2학년생 2명은 일부 교사의 노트북에서 시험지 원본 파일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시험지를 캡처, 사진 파일로 빼돌린 것만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여러 문서 파일에도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가 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험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침에 따르면 시험을 출제하는 교사는 시험지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파일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대부분 교사 노트북에 해당 원본 시험지 파일이 없었으나, 일부 교사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안 걸린 시험지가 저장돼 있어 학생들은 원본 파일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13~14차례 교무실에 침입해 10개 과목 15여개 노트북 전체에 접근, 해킹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경보가 울린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에 설치된 사설 보안 경비 시스템은 지난 1월 이후 먹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어 교사 2명의 노트북만은 해킹에 실패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노트북은 최신 보안기술인 PIN(핀)번호 보안이 걸려 있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우회하는 수법이 먹히지 않았으며, 다른 노트북은 보안 시스템에 걸려 악성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학생들이 해킹 초기 '원격 해킹'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교사들의 시험지를 캡처한 뒤, '페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으로 파일 전송을 할 계획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페이로드 도구를 인터넷에서 구해 해킹용으로 각색했으나,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화면 캡처를 위해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고, 방화벽·백신 프로그램에 저지되곤 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 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USB를 이용해 사진을 직접 가져오기로 했다.

이들은 방행에 악성코드 설치용, 사진 파일 회수용 등 총 2개의 USB를 사용했으며, 경찰은 이중 악성코드 설치용 USB를 확보해 내용물까지 확인했다.

다만 회수용 USB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USB에는 학생들의 실제 문답지 유출 범위와 더불어 1·3학년 문답지 유출 정황이 있었는지, 학교 내부 비밀 등 유출 정황이 있었는지 등 정보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회수용 USB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회수용 USB에 담긴 파일들을 자신들의 노트북에서 정리했다"며 "압수한 노트북에서 증거가 여럿 나온 만큼 USB가 없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1·3학년 시험지나 문답지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 등을 확인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태극기 동산 만들어요”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1일 광주 북구청 광장 화단에서 구청 직원들이 태극기 동산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여학생 4명이 또래 집단폭행’ 수사 여고 인근서 알몸 난동…테이저건 썩 검거

광주 서구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4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10대 여학생 4명을 집단 폭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 한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을 본 목격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가해 여학생 4명의 신원은 모두 특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집단 구타를 하는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여학생 4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둘러싸고 얼굴, 복부 등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 중 1명이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영상은 지워졌다. 경찰은 피해·가해 학생과 목격자 등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나체로 흥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여고등학교 담벼락 인근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체로 비를 맞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귀가 설득하자 A씨는 경찰을 때리고 인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흥기를 가지고 나와 휘둘렀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자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기를 버리지 않아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살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요약도: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물건 번호	소 재 지 및 면적 [㎡]		
2021타경 55524	2	구례군 광의면 운양리 377 426㎡ [연고이상 남골묘소재, 수목 [감나무]매각 제외]	20,022,000 20,0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현황답기타
2021타경 56022	1	보성군 문덕면 동산리 349-1 1967㎡	19,079,900 19,079,900	분양소채
2021타경 56428	1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570-5 2013㎡ [공유 지고해영2/5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 제한]	28,182,000 28,1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매각제외비 하수소3통소재
2021타경 57063	1	여주시 돌산읍 우두리 657-198 547㎡	37,196,000 37,196,000	
2021타경 57261	1	보성군 마력면 화방리 210 2238㎡ [연고미 상분류2]소재, 수목 [310여주]매각 제외]	35,808,000 35,808,000	요
2021타경 57490	1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331-6 288㎡ [공유 자이연육1/2지분전부] 동소 1331-7 3002㎡ [공유자이연육1/2지분 전부]	129,955,000 129,955,0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공 유자우선매수권1 회제한
2022타경 51932	1	사용면적:순천시 주암면 문룡1길144-5 등록번호:67여3465 차명:투산 연식:2016[제3차이영균계보관061-743-2227]	16,000,000 16,000,000	보관:순천시해동 면복성길3, 이수차 동차매매상사내
[자동차, 중기]				
2021타경 5277	1	보성군 발교읍 회정리 458-3 4832㎡	811,654,000 811,654,000	토지매각, 건물 매각제외, 비닐하 우스1동매각제외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병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매수권인이며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지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유지가 그 이후 해당 부
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8. 16. [화] 10:00

2022. 8.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